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추이

성재민*

I. 머리말

통계청은 2012년 10월 말에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이후 8월에만 실시되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7년부터 3월과 8월에 조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8월 조사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비정규직 규모 변화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37.0%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08년 8월(33.8%)까지 감소하였으나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34.9%로 증가하였다. 2010년 경기가 호전되면서 33.4%로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 8월 34.2%로 다시 소폭 증가했고, 2012년 8월에는 33.3%로 감소했다. 2004년 이래 비중으로는 최저수준이다.

세부 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는 2004년 8월 24.7%로 정점에 도달한 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09년 8월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해 2012년 8월까지 19%대를 유지하고 있다. 비전형 근로는 2007년 8월, 2009년 8월, 2011년 8월에 13.9%로 한시적 근로와는 다르게 2000년대 후반과 2011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2년 들어 12.9%로 1%p 하락했다. 시간제 근로는 최근으로 올수록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1 참조).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seongjm@kli.re.kr).

〈표 1〉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전 체	한시적 근로	비전형 근로	시간제근로
2002. 8	14,030	10,190 (72.6)	3,839 (27.4)	2,063 (14.7)	1,742 (12.4)	807 (5.8)
2003. 8	14,149	9,542 (67.4)	4,606 (32.6)	3,013 (21.3)	1,678 (11.9)	929 (6.6)
2004. 8	14,584	9,190 (63.0)	5,394 (37.0)	3,597 (24.7)	1,948 (13.4)	1,072 (7.4)
2005. 8	14,968	9,486 (63.4)	5,482 (36.6)	3,614 (24.2)	1,907 (12.7)	1,044 (7.0)
2006. 8	15,351	9,894 (64.5)	5,457 (35.6)	3,626 (23.6)	1,933 (12.6)	1,135 (7.4)
2007. 8	15,882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7.6)
2008. 8	16,103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7.6)
2009. 8	16,479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8.7)
2010. 8	17,048	11,362 (66.7)	5,685 (33.4)	3,281 (19.2)	2,289 (13.4)	1,620 (9.5)
2011. 8	17,51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9.7)
2012. 8	17,734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주: 1)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2) 한시적 근로이면서 비전형 근로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시적 근로자에도 포함되고 비전형 근로자에도 포함되므로, 전체 비정규직 수는 한시적 근로+비전형 근로+시간제 근로의 합이 아님. 전체 비정규직 수는 이와 같은 중복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비정규직 내의 세부 형태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의 감소는 비기간제 한시근로(반복갱신+기대불가)에서 나타났으며, 기간제는 2012년보다 4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계약 기간별로 구분해 추이를 보면, 1개월 미만 계약을 한 초단기 기간제 근로자 수와 비중의 감소가 2010년 8월까지 지속되다가 2011년, 2012년에는 회복하는 모습이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한 기간제도 2008, 2009년에 급증하였으나 2010년 8월부터는 2010년 8월 34.3%, 2011년 8월 34.7%, 2012년 8월 33.3%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빠르게 증가해온 1년 기간제도 비중 증가가 2010년 8월 이래 주춤한 상태이다.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기간제도 2010년 8월 이래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3년 초과 기간제만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정리하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시장에서는 2011년 8월이나 2010년 8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비전형 근로를 세부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파견, 용역 근로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만 7천 명, 1만 명 증가한 214천 명, 682천 명으로 2002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수형태 근로자는 545천 명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는 전년도보다는 줄었지만, 지난 2~3년간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은 수치이다. 특수형태 근로는 도소매업이나 금융보험업 같은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데, 특히 도소매업에서 약 3만 명가량 줄어든 것이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2〉 한시적 근로 세부 형태별 고용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2002. 8	1,536 (10.9)	281 (2.0)	247 (1.8)
2003. 8	2,403 (17.0)	248 (1.8)	362 (2.6)
2004. 8	2,491 (17.1)	580 (4.0)	526 (3.6)
2005. 8	2,728 (18.2)	302 (2.0)	585 (3.9)
2006. 8	2,722 (17.7)	465 (3.0)	439 (2.9)
2007. 8	2,531 (15.9)	555 (3.5)	460 (2.9)
2008. 8	2,365 (14.7)	374 (2.3)	549 (3.4)
2009. 8	2,815 (17.1)	170 (1.0)	521 (3.2)
2010. 8	2,494 (14.6)	305 (1.8)	481 (2.8)
2011. 8	2,668 (15.2)	339 (1.9)	436 (2.5)
2012. 8	2,714 (15.3)	289 (1.6)	400 (2.3)

주: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기간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2002. 8	728 (47.4)	373 (24.3)	260 (17.0)	90 (5.9)		85 (5.5)
2003. 8	947 (39.4)	698 (29.0)	463 (19.3)	189 (7.9)		105 (4.4)
2004. 8	813 (32.6)	684 (27.4)	641 (25.7)	241 (9.7)		113 (4.5)
2005. 8	824 (30.2)	724 (26.6)	791 (29.0)	262 (9.6)		127 (4.6)
2006. 8	803 (29.5)	747 (27.4)	772 (28.4)	259 (9.5)		140 (5.2)
2007. 8	512 (20.2)	750 (29.6)	851 (33.6)	230 (9.1)		189 (7.5)
2008. 8	400 (16.9)	765 (32.3)	824 (34.8)	191 (8.1)	127 (5.4)	59 (2.5)
2009. 8	255 (9.0)	1,186 (42.1)	1,086 (38.6)	178 (6.3)	78 (2.8)	33 (1.2)
2010. 8	160 (6.4)	856 (34.3)	1,231 (49.3)	152 (6.1)	63 (2.5)	33 (1.3)
2011. 8	168 (6.3)	925 (34.7)	1,264 (47.4)	172 (6.5)	78 (2.9)	60 (2.2)
2012. 8	191 (7.0)	905 (33.3)	1,304 (48.0)	165 (6.1)	78 (2.9)	71 (2.6)

주: ()안은 기간제 근로자 중 각 고용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비전형 근로 세부 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2002. 8	94 (0.7)	332 (2.4)	772 (5.5)	235 (1.7)	412 (2.9)
2003. 8	98 (0.7)	346 (2.4)	600 (4.2)	166 (1.2)	589 (4.2)
2004. 8	117 (0.8)	413 (2.8)	711 (4.9)	171 (1.2)	666 (4.6)
2005. 8	118 (0.8)	431 (2.9)	633 (4.2)	141 (0.9)	718 (4.8)
2006. 8	131 (0.9)	498 (3.2)	617 (4.0)	175 (1.1)	667 (4.3)
2007. 8	174 (1.1)	593 (3.7)	635 (4.0)	125 (0.8)	845 (5.3)
2008. 8	139 (0.9)	641 (4.0)	595 (3.7)	65 (0.4)	818 (5.1)
2009. 8	165 (1.0)	622 (3.8)	637 (3.9)	99 (0.6)	883 (5.4)
2010. 8	211 (1.2)	608 (3.6)	590 (3.5)	70 (0.4)	870 (5.1)
2011. 8	197 (1.1)	672 (3.8)	614 (3.5)	75 (0.4)	962 (5.5)
2012. 8	214 (1.2)	682 (3.8)	545 (3.1)	69 (0.4)	871 (4.9)

주: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업종별·비정규직 여부별 증감

(단위: 천 명)

	정규직			비정규직		
	2011. 8	2012. 8	증감	2011. 8	2012. 8	증감
농림어업	54	44	-9	121	91	-29
광업	10	12	1	1	1	0
제조업	2,911	3,061	150	538	499	-3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1	64	3	9	12	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0	56	-4	10	15	5
건설업	679	624	-55	717	691	-26
도매 및 소매업	1,450	1,496	46	647	656	8
운수업	573	586	13	149	146	-4
숙박 및 음식점업	654	682	28	441	452	1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22	494	-29	136	138	2
금융 및 보험업	483	479	-3	343	319	-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74	175	0	134	139	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94	765	71	157	139	-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22	224	2	867	865	-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99	686	-13	287	282	-5
교육서비스업	795	823	28	555	553	-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71	838	67	466	489	2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1	127	6	129	124	-5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15	513	-1	199	205	6
가구 내 고용활동 등	61	64	3	88	96	8
국제 및 외국기관	7	9	2	1	1	0
전 체	11,515	11,823	307	5,995	5,911	-8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전년 동월 대비 업종별 증감을 보면, 대체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감소하거나 또는 둘 다 증감폭이 매우 적은 모습이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은 둘 다 증가한 경우이며, 건설업은 둘 다 감소,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증감폭이 모두 작은 경우였다. 다만, 정규직이 150천 명 늘고 비정규직은 38천 명 감소한 제조업과 정규직이 71천 명 늘고 비정규직은 18천 명 감소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반대로 움직였다.1)

근속기간별로 보면, 정규직은 전년동월보다 3개월 미만에서 111천 명 감소했으나, 3년 이상에서 194천 명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해 정규직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월은 8천 명 증가했으나 이는 매우 미미한 변동이므로 변동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 들어 정규직으로의 입직 흐름이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현상은 비정규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근속 1년 미만에서 전년 동월대비 숫자가 감소했으며, 그 이상에서는 소폭 증가했다. 2012년의 경기둔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채용 둔화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가능하다.2) 비정규직은 줄어들고 정규직은 증가한 것

〈표 6〉 근속기간별 비정규직 여부별 분포

(단위: 천 명)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비정규직	2011년 8월	1,754	952	715	1,268	1,306
	2012년 8월	1,684	913	703	1,279	1,333
	증감	-70	-39	-13	11	27
정규직	2011년 8월	931	898	1,040	2,453	6,193
	2012년 8월	820	906	1,104	2,605	6,388
	증감	-111	8	64	152	194
제조업 비정규직	2011년 8월	130	77	65	117	149
	2012년 8월	133	47	66	116	138
	증감	3	-30	1	-1	-12
제조업 정규직	2011년 8월	191	213	263	633	1,610
	2012년 8월	188	195	269	720	1,689
	증감	-3	-18	5	87	8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1)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수천 명 단위의 증감은 증감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2) 채용규모는 유지되더라도 새로 뽑힌 사람들 중 이직이 활발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패널조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조사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이직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 채용 둔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으로 나타난 제조업을 보면, 제조업의 비정규직은 각 근속기간 구간에서 고루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정규직은 짧은 근속기간에서는 줄고 1년 이상 근속기간에서는 증가하는 모습을 뚜렷이 보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비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약 8만 명가량 감소했는데, 이러한 비정규직 감소는 근로형태로 볼 때 특수형태 근로나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비기간제한근로 등에서 나타났다. 근속기간 분포와 업종별 비정규직 변동을 볼 때 업종별 경기 상황 그리고 2012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한 감소가 아닌가 추측된다. 비정규직과 달리 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약 30만 명가량 증가했지만, 주로 근속기간이 긴 쪽에서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규직 채용 활성화가 아니라 이직 감소 영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2012년 경기침체로 인한 채용 둔화의 반영일 것이다.

Ⅲ. 비정규직 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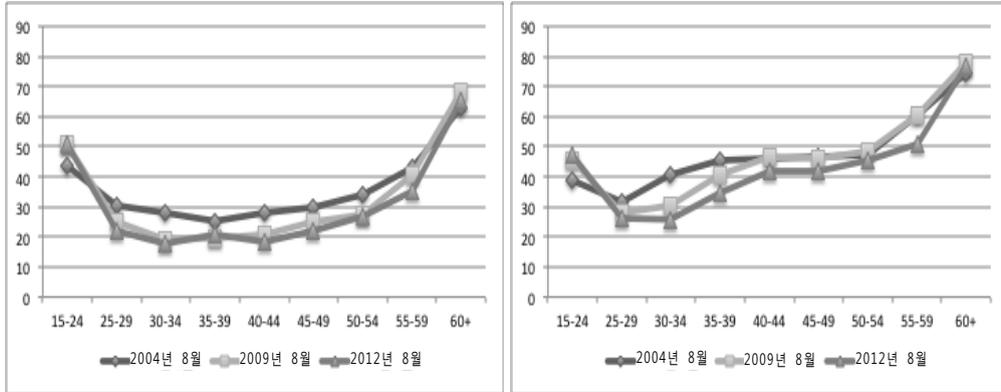
이하에서는 특성별로 비정규직 규모 변화를 살펴보겠다. 먼저 [그림 2]에서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비정규직 비중이 진입연령대에서 높고 중핵연령대에서 낮은 후 은퇴연령대에서 다시 높아지는 U자형 커브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은 비정규직 비중이 30~34세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8월과 비교해 볼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30~34세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2012년 8월에는 25~29세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이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며 30~34세에서도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2004년 8월에 비정규직 비중이 32.2%였지만 2009년 8월에는 28.2%, 2012년 8월에는 27.2%로 하락했다. 연령별 그림을 보면 2004년과 비교할 때 전체 연령대에서 고르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중핵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많이 감소하고 24세 이하,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증가했거나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더 분명한 U자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여성은 2004년 8월에 비정규직 비중이 43.7%, 2009년 8월 44.1%, 2012년 8월 41.5%를 보여 남성과는 추세가 다르다. 진입연령대와 퇴장연령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거나 유지되는 점은 남성과 비슷하다. 그러나 30대의 비정규직 비중이 과거(2004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데 비해 40세 이상의 비정규직 비중은 약간의 감소를 보일 뿐이라는 점은 남성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그림 1] 연령별·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연도별 변화

(단위 : %)



주: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0%, 2011년 8월은 34.2%, 2012년 8월은 33.3%로 나타나 2004년에 비해 2011년이 낮고, 2012년에는 더 낮아졌다. 그러나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에서는 2004년 8월(43.0%)과 비교해 2011년 8월(43.6%)이나 2012년 8월(43.2%)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지 않아 저학력층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직종·학력별 비정규직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2004년 8월			2011년 8월			2012년 8월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전체	고졸 이하	전문대졸 이상	전체
비정규직 수	관리직·전문가	165	677	842	214	871	1,084	185	852	1,037
	사무직	305	408	713	284	400	684	278	410	688
	서비스·판매직	998	186	1,183	1,061	286	1,347	1,127	298	1,425
	농업·기능·조립	1,071	126	1,198	845	164	1,009	820	147	966
	단순노무직	1,381	78	1,459	1,735	137	1,871	1,678	116	1,795
	전체	3,920	1,475	5,394	4,137	1,857	5,995	4,089	1,823	5,911
비정규직 비중	관리직·전문가	33.1	27.6	28.5	35.5	23.9	25.6	32.2	23.2	24.5
	사무직	24.8	21.8	23.0	23.5	15.6	18.2	23.7	15.4	17.9
	서비스·판매직	46.9	32.7	43.9	48.1	34.6	44.4	49.2	32.9	44.5
	농업·기능·조립	34.7	29.2	34.0	30.1	22.4	28.5	28.8	18.7	26.6
	단순노무직	63.4	55.3	62.9	64.8	52.0	63.7	64.8	48.2	63.4
	전체	43.0	27.0	37.0	43.6	23.2	34.2	43.2	22.1	33.3

주: 고졸 이하에는 (전문)대졸 중퇴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하지만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에서는 저학력과는 달리 2004년 8월(27.0%)보다 2011년 8월(23.2%), 2012년 8월 (22.1%)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비정규직 비중 하락은 저학력층이 아니라 주로 고학력층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직종과 학력을 교차 분석해 보면, 고졸 이하 관리직, 전문가 직종 및 단순노무 직종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에서 변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졸 이하 서비스·판매직에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고졸 이하 기능원 및 장치·기계 및 조직원에서는 다소 감소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서비스·판매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정규직이면서 상용직인 정규 상용직은 2004년 8월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비정규 상용직도 2008년 8월 이래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정규 임시·일용직은 2006년 8월을 정점으로 2012년 8월에는 2,715천 명까지 감소했다. 비정규 임시·일용직은 줄어들거나 증가하는 추세는 분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나타난 상용직 비중 증가는 정규, 비정규직 모두에서 나타나며, 임시·일용직 비중 감소는 주로 정규 임시·일용직에서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임시직은 통계청의 정의상 1년 미만 일하도록 계약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일 수 없지만, 1년 이상 일할 수 있어도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 회사의 인사관리규칙 등에서 제외되는 형태의 고용계약상태에 있을 경우 임시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어 정규직이면서 임시·일용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 정규직이면서 임시·일용직인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보험 적용률도 대단히 낮고, 대부분의 노동법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비공식 고용의 특성을 강하게 띤다. 이렇게 보면 정규 임시·일용직의 축소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간 비공식 고용 규모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는 의미도 된다.

〈표 8〉 종사상 지위별·근로형태별 추이

(단위: 천 명)

	정규 상용	정규 임시·일용	비정규 상용	비정규 임시·일용
2004. 8	6,088	3,102	1,612	3,782
2005. 8	6,413	3,073	1,512	3,970
2006. 8	6,639	3,255	1,603	3,853
2007. 8	6,931	3,249	1,832	3,870
2008. 8	7,498	3,160	1,609	3,836
2009. 8	7,829	2,896	1,643	4,111
2010. 8	8,272	3,090	1,879	3,807
2011. 8	8,651	2,864	2,058	3,936
2012. 8	9,108	2,715	2,096	3,8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9〉 비정규직 여부별, 종사상 지위별, 사업체 규모별 인원수 추이

(단위: 천 명)

		2004. 8	2005. 8	2006. 8	2007. 8	2008. 8	2009. 8	2010. 8	2011. 8	2012. 8
1~4인	정규 상용	200	272	380	381	423	476	484	611	622
	정규 임시·일용	1,237	1,202	1,268	1,295	1,322	1,221	1,254	1,198	1,178
	비정규 상용	47	71	98	127	117	127	159	197	220
	비정규 임시·일용	1,325	1,429	1,339	1,369	1,277	1,235	1,298	1,349	1,378
	소계	2,809	2,974	3,084	3,172	3,139	3,058	3,196	3,355	3,399
5~9인	정규 상용	608	686	739	791	863	885	958	1,064	1,179
	정규 임시·일용	796	791	843	876	836	751	856	757	712
	비정규 상용	189	145	167	184	202	224	257	279	319
	비정규 임시·일용	854	861	825	848	890	880	835	877	844
	소계	2,447	2,484	2,575	2,698	2,791	2,740	2,905	2,977	3,054
10~29인	정규 상용	1,305	1,367	1,388	1,545	1,694	1,690	1,850	1,918	2,109
	정규 임시·일용	636	626	645	639	591	527	621	572	533
	비정규 상용	377	339	389	457	416	472	510	572	548
	비정규 임시·일용	833	854	846	891	892	1,025	877	912	852
	소계	3,150	3,186	3,268	3,531	3,593	3,715	3,859	3,973	4,041
30~99인	정규 상용	1,627	1,672	1,717	1,781	1,912	1,979	2,120	2,143	2,172
	정규 임시·일용	286	289	316	305	285	271	265	233	187
	비정규 상용	458	450	443	518	424	435	545	545	548
	비정규 임시·일용	504	531	550	508	513	624	555	552	517
	소계	2,876	2,941	3,025	3,112	3,134	3,309	3,485	3,473	3,424
100~299인	정규 상용	955	940	1,003	1,004	1,111	1,188	1,258	1,326	1,281
	정규 임시·일용	96	116	125	87	90	79	66	69	74
	비정규 상용	283	253	250	282	239	207	222	244	250
	비정규 임시·일용	155	175	182	162	154	182	129	131	130
	소계	1,489	1,484	1,560	1,535	1,594	1,656	1,675	1,769	1,734
300인 이상	정규 상용	1,393	1,476	1,413	1,429	1,495	1,612	1,603	1,590	1,745
	정규 임시·일용	51	48	59	47	37	47	29	36	31
	비정규 상용	258	254	257	265	210	178	185	222	210
	비정규 임시·일용	112	121	112	92	111	165	113	115	95
	소계	1,814	1,899	1,840	1,833	1,853	2,002	1,929	1,964	2,08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9〉에서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 규모에서 정규 상용직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 상용직은 100인 미만 규모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100인 이상 규모에서는 2000년대 중반보다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규 임시·일용직은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지만,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미미한 비중을 보였다. 모든 규모에서 정규 임시·일용직은 현재가 2000년대 중반보다 규모가 축

소된 상태로 보인다. 비정규 임시·일용직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2000년대 중반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비정규직 복지 변화

〈표 10〉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2004	2007	2010	2011	2012	2004	2007	2010	2011	2012	2004	2007	2010	2011	2012
임금근로자	59.5	63.2	65.0	65.1	66.5	52.1	55.3	63.3	64.6	66.2	61.3	64.4	67.0	68.3	69.9
정규직	72.5	76.3	78.4	79.1	80.3	61.5	64.3	75.7	77.4	78.9	73.8	76.7	79.5	80.9	82.2
비정규직	37.5	40.0	38.1	38.2	39.0	36.1	39.2	41.0	42.3	43.3	40.1	42.5	42.1	44.1	45.4
한시적 근로	47.8	57.2	58.6	58.2	58.6	45.5	55.5	61.9	62.7	63.5	50.5	60.0	64.6	66.9	67.7
기간제	48.3	59.3	63.8	62.1	62.3	45.8	57.6	68.0	67.1	67.5	50.9	62.7	71.1	72.1	72.4
비전형 근로	25.7	23.0	22.3	21.1	23.0	25.2	23.9	28.6	28.0	29.9	29.7	27.7	28.8	29.6	32.5
파견	62.8	66.2	67.1	67.1	64.0	63.7	67.9	71.7	72.9	70.4	66.0	67.4	72.0	74.8	70.0
용역	53.7	55.5	59.0	52.6	53.4	52.8	59.6	74.2	67.1	68.0	68.5	73.0	81.3	80.1	81.8
특수형태근로	26.1	9.1	0.4	3.4	3.8	24.1	7.9	2.0	4.5	5.8	28.0	8.7	0.6	4.1	5.6
가정 내 근로	13.8	1.4	7.7	7.6	5.8	13.8	1.4	8.9	8.8	5.6	14.9	1.4	7.0	7.6	5.8
일일근로	0.5	0.4	0.3	0.2	0.2	1.6	0.7	4.0	5.9	4.4	0.3	0.8	0.4	0.3	0.2
시간제 근로	2.4	3.3	9.3	11.0	12.2	3.6	3.7	10.7	13.5	15.0	3.7	4.0	10.6	13.0	14.6

주: 국민연금에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으로 근로형태별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분석해 보았다. 정규직은 2012년 8월 80.3%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였으나 비정규직은 39%의 가입률을 보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직장가입)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을 보면 완만하지만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안에서는 시간제와 일일근로, 가정 내 근로의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용역 및 기간제는 정규직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수준의 가입률을 보였다.

사업체 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30인 이상 규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 90% 이상의 3대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였다(표 11 참조). 하지만 정규직이더라도 5인 미만 규모에서는 30%대, 5~9인에서는 60% 후반 70% 초반 수준의 가입률을 보였다. 비정규직은 100인 이

〈표 11〉 정규직 여부별·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2010. 8	2011. 8	2012. 8	2010. 8	2011. 8	2012. 8	2010. 8	2011. 8	2012. 8
정 규 직	5인 미만	34.4	38.2	39.5	33.6	37.8	39.1	35.4	39.8	40.7
	5~9인	64.1	67.7	69.4	64.1	67.7	69.8	65.9	69.8	72.0
	10~29인	82.7	82.5	84.3	81.4	82.7	84.5	84.0	85.0	87.2
	30~99인	92.3	92.7	93.4	91.1	93.0	93.4	93.8	94.7	95.4
	100~299인	97.2	96.2	95.2	95.7	95.8	95.8	97.7	97.4	97.4
	300인 이상	99.1	97.9	98.6	97.6	97.1	98.2	99.3	98.5	98.9
비 정 규 직	5인 미만	13.4	13.3	14.5	15.7	16.6	17.5	16.3	17.5	19.1
	5~9인	26.3	26.6	28.7	31.0	32.2	34.5	31.2	33.3	35.9
	10~29인	42.6	42.5	43.6	47.4	48.9	50.6	48.0	50.3	52.9
	30~99인	55.7	57.9	58.1	58.4	60.0	61.9	60.1	62.9	63.6
	100~299인	71.2	69.4	72.8	72.3	74.1	75.0	73.2	76.5	78.2
	300인 이상	76.2	74.4	77.0	75.6	78.4	79.5	77.8	79.2	8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상 규모에서는 70% 이상의 가입률을 보였으며, 5인 미만 규모에서는 10%대의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2012년 7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는 이름으로 10인 미만 사업체 월 125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절반 또는 1/3을 지급해 주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아직 시행 후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아 다른 규모에 비해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특히 더 가입률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법정 근로복지인 퇴직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을 분석해 보았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체에도 적용되지만 시간외수당은 가산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연월차 유급휴가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체에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유급휴일은 의무화되어 있다. 퇴직금은 증가 추세가 뚜렷한 반면에 유급휴가나 시간외수당은 지난 3년간 증가추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했으며, 세부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파견, 용역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시간제에서는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정규직은 사회보험의 경우와 흡사한 패턴이 나타났고, 비정규직도 규모가 커질수록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표 12〉 근로형태별 근로복지 수혜 추이

(단위 : %)

	퇴직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2004	2007	2010	2011	2012	2004	2007	2010	2011	2012	2004	2007	2010	2011	2012
임금근로자	54.0	57.5	63.1	64.7	66.7	45.8	49.8	58.7	56.0	58.0	43.4	43.3	44.4	43.7	45.2
정규직	67.4	70.3	76.6	78.4	80.2	58.2	61.7	71.3	69.2	71.0	55.8	54.2	55.4	55.0	56.2
비정규직	31.3	34.8	35.9	38.4	39.6	24.6	28.7	33.6	30.5	32.1	22.2	23.8	22.5	22.0	23.2
한시적 근로	40.1	50.1	55.2	59.0	59.5	31.8	41.9	52.7	47.7	49.3	28.3	34.3	33.0	32.2	33.8
기간제	41.2	52.9	60.7	63.0	63.5	31.4	44.7	58.9	52.2	53.2	27.7	35.1	35.0	33.3	35.4
비전형 근로	21.4	20.6	26.1	26.8	29.7	14.3	14.2	21.7	17.9	19.9	14.0	12.3	14.4	13.5	14.5
파견	54.5	58.6	66.7	71.6	67.9	43.4	45.3	67.2	55.3	54.2	34.6	42.2	44.8	35.9	40.1
용역	47.9	55.4	73.8	73.5	75.9	25.4	35.6	56.8	45.8	47.8	26.6	30.2	34.3	31.8	31.3
특수형태근로	19.2	3.4	0.5	1.5	2.0	15.0	3.5	0.8	1.7	1.8	13.9	1.7	0.0	0.4	0.5
가정 내 근로	12.6	0.4	4.3	7.6	5.1	11.2	0.4	2.3	5.6	2.6	9.0	0.0	1.7	4.3	2.8
일일근로	0.2	0.3	0.2	0.1	0.6	0.1	0.1	0.3	0.3	0.0	2.1	1.3	3.2	4.1	3.8
시간제 근로	2.0	1.9	6.6	9.5	10.1	1.6	2.3	6.0	5.3	6.8	1.8	2.3	5.7	6.4	6.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3〉 근로형태별 근로복지 수혜 추이

(단위 : %)

		퇴직금			유급휴가			시간외수당		
		2010. 8	2011. 8	2012. 8	2010. 8	2011. 8	2012. 8	2010. 8	2011. 8	2012. 8
정 규 직	5인 미만	32.3	37.2	38.1	29.7	27.8	30.2	13.3	13.6	13.7
	5~9인	59.8	64.3	68.4	52.1	51.6	53.2	28.6	31.1	32.2
	10~29인	80.2	81.7	84.5	71.5	68.9	71.4	53.6	53.7	54.4
	30~99인	92.0	93.0	94.0	86.4	83.9	85.5	72.3	72.3	72.6
	100~299인	96.5	96.6	96.1	93.0	89.5	89.7	79.9	78.0	78.6
	300인 이상	98.8	97.9	98.8	97.1	96.9	97.0	88.5	85.0	88.4
비 정 규 직	5인 미만	13.1	15.6	16.8	11.6	9.7	11.2	7.9	6.9	7.1
	5~9인	26.8	28.1	31.9	22.2	19.6	23.6	13.1	12.7	14.6
	10~29인	40.4	43.3	44.4	37.5	31.9	33.7	21.8	21.6	23.9
	30~99인	52.9	55.6	56.1	49.6	47.4	50.7	36.5	36.3	38.5
	100~299인	65.5	68.8	70.0	65.8	61.2	60.5	47.9	50.0	47.2
	300인 이상	62.7	66.8	69.8	67.0	68.0	66.3	50.5	47.7	5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V. 맺음말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했다. 비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약 8만 명가량 감소했는데, 근로형태로 볼 때 특수형태 근로나 가정 내 근로, 일일근로, 비기간제 한시근로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기간제는 전년동월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며, 파견·용역 근로자는 2011년보다 소폭 증가해 2002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정규직은 전년동월대비 약 30만 명가량 증가했지만, 주로 근속기간이 긴 쪽에서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규직 채용 활성화보다는 이직 감소 영향이 아닌가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2000년대 중반과 비교하면 남성 노동시장 중핵연령대, 여성 30대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고,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낮아지며, 정규 상용직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2011년과 비교해도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 비정규직 비중 감소, 정규 상용직 증가가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2011년보다 증가했으며, 퇴직금·유급휴가·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정규직 비중도 2011년보다 소폭 개선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KL**